

# 내 이름이 박힌 첫 책을 펴내다

책으로 쓰는 자서전 — 11

김병익 | 문학평론가

“나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문학과 학술을 중심으로 청탁받으면 사양하지 않고 어떤 문제라도 가림없이 글을 썼다. 지금 같으면 통하지 않을 이런 방만한 글쓰기를 내 스스로에게 허용한 것은 우선 그것이 적은 월급을 벌충해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내게 중요했던 것은 그 글쓰기의 작업이 우리 문화계를 알아내고 내 지식수준을 늘려가는 방법이 됐기 때문이다.”

문화부 기자생활이 익숙해지고 주변을 조금씩 둘러볼 여유가 생기면서 나는 선배들이 우리 신문이 아닌 잡지들에 자신의 이름을 달고 쓰는 글을 보고 부러워하며 나는 언제쯤이나 그럴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의외로 빨리 왔다.

## 다양한 글쓰기로 문화관련 지식 넓혀

먼저 온 기회는 입사한 지 2년쯤 됐을 때 맡기 시작한 월간 《신동아》의 〈뉴스와 화제〉 칼럼이었다. 《사상계》가 교수, 학자와 문학인 등 전문 지식인과 문필가들의 글로 이뤄진 사상 교양지였다면 《신동아》는 전업 문필가가 아닌 전문 직업인이나 기자들의 참여가 높은 시사지여서 나는 이 두 잡지의 성격 차이가 1950년대와 1960년대 간의 지식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더랬는데, 이 《신동아》의 권말에는 각 분야의 ‘뉴스와 화제’를 한두 페이지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난이 있었다. 나는 문학과 학술을 ‘병’과 ‘의’의 이니셜로 나눠 두 가지를 동시에 쓰기도 했고 그 하나를 맡기도 했다. 문화부에서 담당하며 취재한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기에 쓰기도 편했고 또 그만큼 잘 써지기도 했다.

기자적 관점에서 우리 문화계에 대해 매달 쓰는 칼럼은 아마도 더 있었을 것인데 여러 해 뒤겠지만 월간 《기독교사상》에도 정기적으로 썼던

것 같고 이런저런 잡지에도 르포나 취재 기사를 청탁받는 대로 사양하지 않고 마구 써댔다. 《세대》지의 이중환이 부탁해서 전에도 잠시 회고한 우리나라 대학 사회에 대한 대어섯 차례의 르포도 썼는데, 이때는 내 이름의 변을 하나씩 따서 만든 ‘김 흥’ (金煥)이란 필명을 사용했다. 신문사에서 타사의 잡지에 글을 쓰려면 받아야 할 허락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특수대학원 르포가 나가고 난 다음 그 때문에 인터뷰한 서울대 신문대학원장 김구환 박사가 길에서 나를 보고 “김 흥씨!” 하고 불러 내 필명임을 미처 기억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난다.

1971년 4월에는 강원릉 목사의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문제’를 주제로 큰 세미나를 열었다.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가혹해지고 사회 전반으로는 급속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슬한 갈등이 제기되며 이에 따라 각계의 쟁점도 심각해지고 있을 때였다. 이 세미나에서 나는 문화 쪽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발제를 의뢰받았다. 다른 발제자들이 40대 이상의 학자, 교수였던 것에 비해 아직 30대 전반의 일개 신문기자였던 내가 그분들과 함께 주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여간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

니었다. 그럼에도 나는 뻔뻔스레 그 원고를 썼고 발표를 했으며 여석기 선생에게서 과분한 코멘트까지 받았다. 그 세미나는 신문마다 크게 보도됐고 《동아일보》에도 후배 기자에 의해 기사화됐는데, 자기 회사 기자의 세미나 발제문을 사진과 함께 크게 소개한 경우는 그 전이나 후에도 매우 드물었을 것이다.

아무튼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의 여러 해 동안 나는 우리 문화계에서 좀 작은 마당밭 노릇을 해오지 않았나 싶다. 나는 문학과 학술을 중심으로 종교와 교육 부문까지 포함한 문화계 각 부문의 이런 저런 주제들에 대해 청탁받으면 사양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라도 가림없이 집적거렸다. 지금 같으면 통하지 않을 이런 방만한 글쓰기를 내 스스로에게 허용한 것은 우선 그것이 적은 월급을 채워줄 원고료 수입을 보충해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내게 더 중요했던 것은 그 글쓰기의 작업이 우리 문화계를 알아가고 내 지식 수준을 늘려가는 방법이 됐기 때문이다. 내게 생소하거나 내가 잘 모르는 주제를, 취재하고 자료를 보고 분석하며 혹은 글을 쓰면서 해석하는 동안 그 문제는 내 나름으로 정리되는 것이었다. 그것들이 나에게 지적 자산으로 쌓여간다는 것을 그때도 깨닫고 있었다. 그 경험 때문에 나는 후배들이나 인문학 쪽인 우리집 아이들에게, 젊었을 때는 알든 모르든 많은 글을 쓰도록 권하게 됐다. 그것은 지적 주제에 대한 사유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관점에 대한 조정 능력을 키워주고 또 그 자체가 주제에 따른 글쓰기의 연습이 되는 것이었다.

## 오웰 작품 우리말로 옮겨

기자로서의 글쓰기가 아닌 글의 맨처음은 황순원 선생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원웅서 선생이 주재하던 《문학》에 발표한 수필이었다. 1967년이었지 싶은데 청탁받아 쓴 그 수필은 프랑스의 라디게와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을 중

심으로 어린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훑으면서 우리 문학의 경우를 살펴본 짧은 수상체의 글인데, 김 현이 그것을 보고 재미있다고 해준 촌평이 유일한 독자 반응이었다. 그러고서 쓴 것이 내가 다시 꺼내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상계》에 실린 〈세대 연대론〉이었다.

내 이름으로 나온 첫 책은, 비록 저자가 아니고 '역자'였지만 조지 오웰의 《1984년》으로, 지금 확인해보니 그 간행이 1968년 5월이었다. 이 책의 번역에 동의해 간행해준 분이 문예출판사 전병석 사장인데, 그 즈음의 그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진 출판사 사장으로서 전집이 주류를 이루던 당시의 출판계 정황 속에서 단행본 간행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쉽게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전자 장편에 모험을 걸어 이진영, 유현종 등 몇 작가의 전자 소설을 내는 데 성공했다. 나는 《타임》지가 '새로운 낭만주의'를 예고한다며 커버스토리로 소개한 에릭 시갈의 《러브 스토리》역간을 전자장에게 권했다. 그것이 히트를 쳤고 이어 김 현이 번역한 생 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출판해서 스테디셀러가 됐고 그래서 문예출판사는 사세도 커졌을 뿐 아니라 번역소설 출판사로 이름을 떨치게 됐다.

나는 오웰의 《1984년》을 중학교 때 읽었다. 물론 번역본인데 내가 이 책을 새로 번역하면서 참조하기 위해 구한 그 책은 4290년(1957년)에 나온 정연사(精研社)판이며 그 역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나만식(羅萬植)이었고 '역자 소기(小記)'는 '1950년 3월'로 박혀 있다. 내가 중학교 때 본 것은 그러니까 한국전쟁 전에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 정연사판은 그것을 복간한 것으로 추측된다. 《1984년》이 영국에서 1949년 초연이 간행된 것을 감안하면 그 시절에 놀랄 만큼 빨리 번역됐던 것이다. 어쨌든 소년시절에 그 소설을 보면서 기이하고 무시무시하다는 소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자생활을 시작하면서 읽게 된 미국의 비평가 어빙 하우의 정치와 문학의 문제를 다룬 글(나는 이 글을 번역해서 《신동아》에 실었다)을 보면서 거기에 중요하게 언급된 오웰의 이 소설을 새삼 떠올리게 됐다. 그래서 문고판으로 사둔 이 책을 언젠가는 번역해보고 싶다는 뜻을 전병석 사장에게 말했고, 그가 쾌히 수락해줘 나는 곧 그 번역에 들어갔다. 그 소설을 번역할 때의 심경은 1984년에 쓴 《〈1984년〉과 1984년》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피력돼 있다.

“나는 지금도 1967년의 겨울을 고통스럽게 기억한다. 갓난 아이를 옆에 누이고 춥고 바람이 드센, 그래서 더 어둡고 썰렁하게 느껴지던 방 안에서 나는 《1984년》을 번역하고 있었다. 그때의 정황은, 그 소설의 전율스러운 공포에 덮쳐져, 무섭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리하여 꼭 나 혼자만이 깨어 있는 듯한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이 《1984년》의 바로 그 안에서, 윈스턴 스미드가 일기를 쓰기 시작할 때의 그 두려운 절박감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과연 《1984



나와 오웰의 인연은 오래고 짙긴 면이 있다. 중학교 때 읽은 《1984년》을 문예출판사의 전병석 사장 호의로 번역한 것이 1968년이였다. 그런데 이 책을 이청준의 소개로 1982년 중원사에서 재간하게 됐고, 그 번역료로 오디오를 마련하게 됐다. 사진은 그 계기가 됐던 스웨덴 한국문학포럼을 마치고 정현종(왼쪽), 이청준과 함께 한 필자의 모습(1982년 10월).

년》의 세계는 올 것인가. 그것은 예언인가 경고인가. 이 실제적인 질문은 뒷켠에 있을 뿐이었다. 내게는 《1984년》의 많은 일들이 현실의 징조로 그대로 대입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럼에도, 우리의 1984년은 다가오기는 하지만, 결코 그 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처럼 임재하지는 않을 것 같은 거리감을 느꼈었다. 그것은, 일렬로 늘어선 점호시간에서처럼, 번호는 하나하나씩 불러져 나가고 오웰의 그 '악몽의 해'의 전조는 점점 더 실감을 피우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84라는 숫자는 영원히 결석하여 이 지상의 달력으로부터 빠져나갈 것 같은 비현실적인 감각이었다. 징후를 강력하게 느낄수록 오히려 그것의 실재화는 요원하게 바라보이는 역설.”

나는 1960년대 후반의 그때부터 이미 권력의 억압이 1984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두렵게 예감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시절을 회고하던 1984년은 신군부의 독재가 여전히 기승하고 있을 때였다.

### 《동물농장》에 얽힌 에피소드

이렇게 해서 나는 내 이름이 박힌 첫 책을 오웰의 미래소설로 등록했고 그의 또다른 문제작인 《동물농장》은 4년 후 역시 문예출판사를 통해 간행했다. 이러면서 나는 오웰의 책과 그에 관련된 책과 기사들을 모으며 오웰의 아마추어 전문가가 됐고 그 1984년에는 그의 작가-작품론으로서 《오웰과 《1984년》》(레이몬드 윌, 문학과 지성사)을 편집, 번역 간행했다. 덧붙여, 이 《1984년》 덕분에 오디오 세트 하나를 장만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야겠다. 1982년 이청준, 정현종과 함께 스웨덴의 한국문학 포럼에 참석했다가 들른 파리에서 유학중인 오생근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는 우리에게 나나 무스쿠리의 노래를 전축으로 들려줬다. 특히 〈노예들의 합창〉이 너무 감명적이어서 귀국하면 오디오를 장만해 이 노래를 듣자고 이청준과 약속했다. 그게 계기가 돼 이청준은 여자 가수가 등장하는 《제3의 현장》이란 소설을 써서 그 인세로, 나는 이청준의 소개로 중원사에 약간 수정한 《1984년》 원고를 다시 팔아 그 수입으로 황동규가 주선한 오디오 세트를 장만할 수 있었던 것이다. ●